

<p>국 어</p> <p>담당 : 김상곤 교수</p>	<p>4월 8일 시행 중앙인사위원회</p> <p>9급 국어 복원문제</p>	<p>중앙고시학원 /</p> <p>221-5525</p> <p>www.gosicenter.co.kr</p>
-------------------------------	--	---

1. 다음 중 로마자 표기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영동-Yeongdong ② 종로-Jongno
 ③ 신라-Silla ④ 여의도-Yeoido

2. 다음중 쓰임이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너비 : 사고가 나서 경찰이 도로의 너비를 재고 있다
 넓이 : 그 농장은 넓이가 3만 평이나 된다
 ② 한참 : 담장을 따라 한참을 가니 그 집이 나왔다
 한창 : 요즘 놀이공원은 사람들로 한창 붐빈다
 ③ 있다가 : 지금은 바쁘니까 있다가 만나자
 이따가 : 조그만 누워 이따가 일어나마
 ④ 짬 : 그는 사과를 껍질째 먹어버렸다??
 채 : 양복을 입은 채 잠이 들었다

3. 밑줄 친 부분은 같은뜻의 다른 용어로 순화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것은?

- ① 이 [비상변-비상버튼(비상벨브)]은/는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사용하는 것이므로 평사시에는 손대지 마십시오
 ② 전동스쿠터 이용자가 이 리프트를 타실 때에는 탑승 전에 안전고리를 스쿠터 앞에 [체결-연결]하시고 안전 로프를 허리에 매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③ 규정을 어기고 경비를 과다 지출한[시말서-경위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해당 부서에서는[마스터플랜-조감도]를 이 달 말까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다음 ㉠과 ㉡에 들어갈 '사전'의 한자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국어사전(國語㉠) 백과사전(百科㉡)

- | | |
|------|----|
| ㉠ | ㉡ |
| ① 辭典 | 事典 |
| ② 辭典 | 辭典 |
| ③ 事典 | 辭典 |
| ④ 事典 | 事典 |

5. 다음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가) 연암 박지원은 너무도 유명한영정조 시대 북학파의 대표적 인물 중의 한 사람이다. 그가 지은 ‘열하일기’나 ‘방경각외전’에 실려있는 소설이 몰락하는 양반 사회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문장(文章)이 또한 기발하여 그는 당대의 하다한 문사들 중에서도 최고봉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추앙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문학은 패관기서(稗官奇書)를 따르고 고문(古文)을 본받지 않았다하여 하마터면 ‘열하일기’가 촛불의 재로 화(化)할 뻔한 아슬아슬한 장면이 있었다. 말하자면 연암은 고문파(古文派)에 대한 반항을 통하여 그의 문학을 건설한 것이다(새로운 민족문화의 전통 창조)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민족 문화의 전통을 연암에게서 찾으려고 할지언정 고문파에서 찾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민족 문화의 전통에 관한 해명의 열쇠를 제시하여 주는 경은 아닐까?

(나) 이러한 의미에서, 민족 문화의 전통을 무시한다는 것은 지나친 자기 학대(自己虐待)에서 나오는 편견(偏見)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첫머리에서 제기한 것과 같이, 민족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자는 것이 국수주의나 배타주의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왕성한 창조적 정신은 선진 문화 섭취에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새로운 민족 문화를 창조하는 일이 단순히 과거를 묵수(墨守)하는 것이 아님과 마찬가지로, 또 단순히 외래 문화를 모방하는 것도 아님은 스스로 명백한 일이다. 외래 문화도 새로운 문화의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뜻이 있는 것이고, 그러함으로써 비로소 민족 문화의 전통을 더욱 빛낼 수가 있는 것이다.

- ① 민족 문화의 전통 계승의 정당성
- ② 민족 문화의 전통 계승의 부당성
- ③ 외래 문화 수용의 부당성
- ④ 외래 문화 수용의 정당성

6. 제시된 지문을 토대로 할 때 연암 박지원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 ① 당대에 문화를 따르지 않았다는..
- ② 당시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 ③ 인습을 타파해야 한다는..
- ④ 당시에 이목을 끌지 못했다는..

7. 우리말의 언어예절과 맞지 않는 것은???

- ①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세요.제가 깜빡 딴 생각을 하느라고 서 계신것을 몰랐습니다.??
- ② 나, 아버지 대학후반데, 저녁에 아버지 들어오시면 내일 오후 여섯시에 만나식당에서 동창회가 있다고 꼭 전해주게.??
- ③ 민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친구 영훈이 엄마입니다.?민수 엄마 댁에 계세요???
- ④ 누나, 항상 내 곁에 머물러 있을 것 같았는데 며칠 후면 시집을?간다고 생각하니 섭섭해.??

8. 다음은 「감옥으로부터 사색」이란 글의 일부를 손질한 것이다. 의미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배열한 것은?

(가) 노인들의 불만은 젊은이들은 일을 여기저기 벌여 놓기만 하고?마무리를 앓는다는 것 입니다. 먼저하고 나중할 일을 혼동하는가 하면, 일손을 모아서 함께 해야 할 것도 제 각각 따로따로 벌여 놓기 때문에 부산하기만 하고 진척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 농사일은 파종에서 수확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일관된 노동입니다. 일의 선후가 있고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생명인, 이를테면 법시의 일생이면서 그 우주를 가꾸는 일입니다.?부품을 분업 생산하여 조립, 완성하는 공업 노동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 노소가 함께 일하는 경우에 노인들은 흔히 젊은이에 대하여일정한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주로 젊은이들의 일하는 자세 일에 대한 태도 때문입니다.??

(라) 젊은이들의 이러한 태도가 어디서 온 것인가를 언젠가 좌상님께 여쭙어 보았더니 한마디로 농사일을 해보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간결하고 정곡을 찌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3. 다음을 읽고 지은이의 심정을 나타내는 것은?

관을 내렸다.
깊은 가슴 안에 밧줄로 달아 내리듯??
주여
용서하옵소서
머리맡에 성경을 얹어주고
나는 옷자락에 흠을 받아
좌르르 하직했다

- ① 담담한 어조로 상황을 수용하고 있다.
- ② 절망적 심정으로 대상을 원망하고 있다.
- ③ 감상에 사로잡혀 자신을 책망하고 있다.
- ④ 감정을 토로하며 슬픔을 극복하고 있다.

14. ‘양극화 해소’라는 주제로 글을 쓸때 계획하기 단계에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 ① 어떤 방향으로 써야 할지 주제와 목적을 정한다
- ② 구체적인 표현에 맞는 적절한 어휘와 수사법을 정한다
- ③ 생생한 아이디어들을 글의 조직 원리에 맞게 배열한다
- ④ 상황과 독자를 고려하여 주제와 관련되는 자료의 종류와 수집방법을 정한다

15. 재난 상황에 직면한 공무원이 방송한 내용이다. 어법에 맞고 의미가 분명한 것은?

- ① 사람들이 위험한 건물에서 대피해야 하므로 혼란이 예상된다. 이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찰의 협조를 얻어 치안유지에 만전을 기해주시시오.
- ② 특히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건강유지를 위해 빵과 우유 일만 개를 준비해 주십시오.
- ③ 구급차가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잠시 주차중인 차량과 운전자들에게 방송을 통해 협조를 구해 주십시오.
- ④ 담당공무원들은 주민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구호품을 이재민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16. 지문중 밑줄친 부분과 진술 방식이 유사한것은?

언어는 기본적으로 인간 상호간의 의사 소통을 위한 기호의 체계이다. 모든 기호가 그렇듯이, 언어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것을 실어 나르는 '형식'의 두 가지 요소로 구분된다. 언어에서의 내용은 의미이며, 형식은 음성이다. 이러한 의미와 음성의 관계는 마치 동전의 앞뒤와 같아서,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언어라고 할 수 없게 된다. 즉, 음성만 있고 의미가 없거나, 음성은 없고 의미만 있다면, 언어로서 성립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 ①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태어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 ②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분하는 두드러진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 ③ 언어는 습득은 인종이나 지능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 ④ 언어기호란 하나의 언어사회에서 어떤 개념을 특정한 소리를 사용하여 지시하자는 약속이다.

17. 밑줄 그은 부분과 같은 형태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국어에서 음절의 끝소리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은 'ㅂ, ㄷ, ㄱ, ㄴ, ㅇ, ㄹ' 일곱 소리뿐이다. 따라서 음절 끝에 일곱 소리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일곱 자음 중의 하나로 바꾸어 발음한다. 이러한 음운 교체 현상을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한다. 가령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낱, 낫, 낯, 낯, 낯'과 같은 단어들을 읽어보라고 하면 다 똑같이 [낯]이라고 발음한다. '꽃 위[꼬뒤]'처럼 바침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형태소가 오면 위 규칙을 따른다. 그러나 다시 이 단어들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가 오면 '낯으로[나스로]'와 같이 앞 단어의 받침에 있던 소리들은 살려낸다.

- ① 무릎이[무르피] ② 늪 앞[느밥]
- ③ 흙 위[흐귀] ④ 몇 월[머?m]

18. 다음 중 두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 ①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의 귀와 비슷하다.
- ② 가을엔 쪽빛 하늘과 황금빛 들판이 맞닿는다.
- ③ 나는 눈이 큰 진영이의 언니를 선생님께 소개해 드렸다.
- ④ 일상 생활에서도 관용적인 표현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19. 관동별곡의 일부이다. 밑줄친 부분이 묘사하는 대상은?

銀은 가튼 무지개, 玉옥 가탄 龍룡의 초리, 섯돌며 뿔난 소래 十십리리의 자자 시니, 들을 제난 우레러니 보니난 눈이로다.

- ① 은하수 ② 폭포 ③ 옷고름 ④ 파도

20. 다음의 글에서 독음이 옳지 않은것은?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①施行된다.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과 취업 ②斡旋 업무는 국가 또한 공공기관이 직접맡고 5월이나 내년 3월로 출국기간이 ③猶豫된 불법체류자중 체류기간이 3년미안인 외국인노동자는 2년의 고용허가를 받게된다. 정부는 29일 국무조정실 ④主宰로 차관회의를 열고..

- ① 施行(시행) ② 斡旋(주선)
- ③ 猶豫(유예) ④ 主宰(주재)